

# 광주시 글로벌 의료기업 투자유치 헛발질

광주시가 추진했던 3000억원대 글로벌 의료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본사 차원에서는 투자계획이 없는데도 광주시는 한국 파트너 측 제안만 믿고 비전선포식 등 효를 감을 떨어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트렸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비전선포식을 통해 발표했던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Medline)' 3000억원대 투자계획이 미국 본사 차원에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미국 시카고를 방문해 메드라인 본사의 광주공장 투자에 대해 확인한 결과, 메드라인은 한국에 새로운 공장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시카고를 방문해 메드라인 부사장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다.

박 부시장은 "현 단계에서는 메드라인의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향후 메드라인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투자계획을 제시하면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투자유치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초 메드라인의 한국측 파트너의 제안을 받고 12월14일 11광주진남본부와 3시간 10이를 체결했다.

또 2월3일에는 메드라인 비전선포식을 통해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연매출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이 광주에 3000억원대 투자를 결정해 전문 인력과 청년 일자리 등 35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골자였다.

메드라인이 빛그린산업단지에 의료용품 별군과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지어 여기에서 생산된 의료용품을 국내의 의료기관 등에 공급한다는 프로세스도 설명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드라인은 연매출 92억 달러(한화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90개 국에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며, 고용 직원만 1만5000명에 달한다.

메드라인이 광주에 투자할 경우 광주를 아시아권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본사 차원의 투자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내면서 광주시의 허술한 투자유치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美 본사측 통화 "한국 투자계획 없다"

### 한국 파트너 제안에 광주시 우왕좌왕

### 비전선포식 등 홍보...행정신뢰성 실추

특히 메드라인 투자유치는 운영현 광주시장이 역점을 뒀던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한국측 파트너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본사 차원에서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담보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러가지 의문점도 남는다.

그동안 광주시가 보여 온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체도 없는 투자유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흥

보했다가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트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병규 부시장은 "투자를 제안했던 인물이 메드라인의 한국측 파트너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본사 차원의 투자계획이 없는 만큼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메드라인 한국측 대표는 최근 광주시에 투자정보 유출을 지적하는 내용 중령을 보낸 바 있어 향후 광주시와의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갑작스럽게 쏟아진 5월의 우박 3일 오후 서울 충무로에서 철쭉 꽃잎 위로 갑작스레 쏟아진 우박이 쌓여 있다.

##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강력 처벌해야" 국민청원 봇물

광주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을 폭행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남성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한번 씩만 봐주세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하게 조치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에 13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집단폭행 피해자 가족이 올린 글을 인용해 "(누구든)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과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일행간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집단폭행 사건이 벌

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34)씨 일행(남성 7명·여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술집에 있었던 B(33)씨 일행(남성 3명·여성 2명)과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었다.

B씨 일행이 특정 어플을 통해 부른 택시를 A씨 일행 중 1명이 먼저 타고 가면서 시비가 붙었다.

싸움 초반에는 A씨와 B씨의 일행 중 1명씩 먼저 다툼을 벌였으며 나중에 나머지 일행이 가세하면서 집단 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 일행 7명은 "기본 나쁘게 쳐다보며 혐의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공원에서 둔기와 나뭇가지로 수차

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명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A씨 일행 중 3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 가담 여부를 살피고 있다.

임형택 기자



## 광주서 SUV가 구청 청소차량 추돌...2명 부상

3일 오전 9시58분께 광주 광산구 지평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37) 씨가 몰던 SUV 차량이 광산구청 노면청소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청 차량 운전자 양모(32) 씨와 김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로에서 노면청소 중인 차량을 김씨가 뒤늦게 발견,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 기자

## 폐수 바다에 버린 50대 선장 입건

선박의 밑부분에 저장돼 있는 폐수를 바다에 버린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안도해양경찰서는 3일 선저폐수를 바다에 불법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9급 선박의 선장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안도군 안도항 1부두에서 선박의 밑부분에 저장돼 있는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저에는 기관실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폐수통이 설치돼 있으며 전문업체를 통해 버리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통해 선저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으며 유출된 기름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안도해경 관계자는 "선저폐수가 유출되면 바다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도=김광수 기자

## 금품수수 혐의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대학생 선발과정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하게 하고, 기자제 입학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일 국립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전 학과장 A(56)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입시 비리에 가담한 같은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 낙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서울 사립대 교수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공군에서 선호하는 남학생만 선발하고 여성·특성화고 출신을 고의로 배제했고, A 교수의 지시를 받은 B(41) 교수와 C(44) 입학사정관이 함께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

검찰은 A 교수와 함께 B 교수, C 입학사정관에게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 교수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을 하면서 뒷돈을 받기로 약속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낙찰 사항을 정해 공고한 뒤 투찰 예상금액을 공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아내 살해 뒤 투신소동 30대 구속영장 신청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투신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기로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투신 소동을 벌이다 붙잡힌 A(3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8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휴지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불은 꺼졌다.

이후 A씨는 자해를 한 뒤 14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투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민투 끝에 범행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55분께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밀다툼을 벌이다 화기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명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급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명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